

“6년 전 비극 없었다면 스물 넷 청년으로 자랐을텐데...”

세월호 사고해역 찾은 유가족들 오열

“7주기 전에는 침몰 원인 밝혀지길”

“아들아! 엄마 아빠 왔다. 보고 싶다.”

지난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 드넓은 바다에 홀로 떠있는 노란 부표만이 이곳이 6년 전 세월호 침몰장소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부표를 바라보며 저세상으로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4·16가족협의회 유가족 40여명과 일반인유가족협의회 5명, 관련 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은 이날 오

전 7시57분쯤 목포해경전용부두에서 목포해경 3015함을 타고 출발, 55마일(88.5km) 떨어진 사고해역에 3시간여 만에 도착했다.

4~5m 파도가 치고 초속 14~16m 바람이 불던 6년 전 그날과 달리 이날 사고해역은 비교적 잔잔했다.

배가 사고해역에 다가서면서 선실에 있던 가족들이 갑판으로 나와 선상추모식을 준비했다.

가족들과 부표 사이 거리는 약 50m.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국화를 한송이씩 들어 부표를 향해 던

지며 아이들을 그렸다. 세월호가 인양된 곳을 표시하는 부표는 물결 따라 좌우로 조금씩 흔들릴 뿐이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크게 요동쳤다.

바다로 국화가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질 때마다 가족들은 6년 전 차디찬 바다에서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비극이 닥치지 않았다면 24살이 되었을 아이들의 이름을 찾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커져만 갔다.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이, 엄마 왔다”고 외치면서 “미안하다”고 되뇌는 여성의 손을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꼭 잡아주는 등 가족들은 손을 잡거나 등을 토닥이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고 정동수군 아버지 성용씨는

“매년 찾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침몰 원인조사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로 시간은 흐르고 (세월호 참사는) 조금씩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가족들의 헌화에 이어 3015함은 기적을 5초 동안 울려 사망자 299명과 실종자 5명을 기렸고, 3015함장 등 해경들 역시 국화를 바다에 던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선상 추모식은 35분 가량 이어졌다.

“힘드신 줄 알지만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3015함은 세월의 흔적 탓인지 ‘호’자가 지워져버린 부표를 한바



취도 뒤 목포해경전용부두로 뱃머리를 돌렸다. 갑판을 쉽게 떠나지 못하던 한 유가족은 “내년 7주기 전에는 세월

호의 침몰원인이 밝혀져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짧게 답한 뒤 선실로 몸을 옮겼다.

‘코로나 폐기물 대란’ 막는다...재활용 안정화 대책 추진

환경부, 가격연동제 적극 추진...자금 지원 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택배 물량과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확산 △폐기물처리업 보관량·기간 확대 △폐기물 공공비축 추진 △재활용산업 육성용자자금 조기집행 등을 골자로 하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요가 감소, 유통구조 상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아파트)과 계약에 따라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금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환경부가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 단기 인화요율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나서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단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

또 재활용 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지자체가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용자자금 1634

억원 중 1분기 650억원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원(이율 1.1%)이 모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13일부터 자금 신청을 접수받으며,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loan.keiti.re.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총 46억원의 분기별 지급 항목을 월별 지급으로 전환해 기업 자금 유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에도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 수거체제로 즉시 전환해 국민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를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박원순, 부활절 맞아 “오프라인 예배 중단 결단 교계에 감사”

“사랑과 희생과, 연대만이 인류를 지탱하는 정신적 백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활절 아침을 맞은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그동안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 연대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오신 교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과 희생을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활절 아침이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다 함께 기뻐하는 희망의 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멈춤’을 실천한 효과로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아직 안심하긴 이르고 여전히 곳곳에서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반드시 이 고난의 강을 건널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상황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새롭게 자각하고 깨어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엄혹한 위기와 도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탈바꿈을 요구하며,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 나아가야 지혜를 묻고 있다”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랑과 희생과 연대만이 인류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백신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부활절인 이날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가 시내 전체 교회 640여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10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교회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강남구 광림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 대형교회가 현장 예배를 예고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부활절 날 교회의 현장예배가 지난주 194개소 보다 10%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사랑제일교회도 정부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 점검하고 강행하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입법예고



공무원 쓰던 태블릿PC 온라인 수업 학생 손으로

경기 수원시는 ‘온라인 개학’으로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태블릿PC 200대를 지원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장수석 수원시 정보통신과장은 최근 수원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고장 충북 청주에서 직지(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가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직지 가치 증진을 위해 4년마다 목표와 방향, 시책, 콘텐츠 개발과 지원 등이 담

긴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청주시 직지가치증진위원회 구성과 직지의 날 행사 추진, 유네스코 직지상 수여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와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했다.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상·하권 중 하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단양군체육회, 주민 건강지킴이 ‘홈트레이닝 서비스’ 개설



충북 단양군체육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군민을 위해 따라 하기 쉬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 체육회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장기간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에 노출 될 수 있는 학생들과 활동량이 감소된 군민을 위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개설했다.

홈트레이닝 서비스는 단양군체육회 홈페이지(http://www.dysports.or.kr)를 통해 영상 송출한다.

홈트레이닝 콘텐츠에는 학생, 직장인의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가족 홈트레이닝, 커플 운동법, 유아 체육 등 다양한 게시물을 준비했다.

특히, 영상 제작부터 촬영, 편집까지 군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어 보급하고 있어 더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송중호 회장은 “온라인 개학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며 “점차 다양한 양질의 홈트레이닝 게시물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빈집 11곳 정비...임대주택·쉼터·텃밭 등 활용

전북 전주시가 빈집을 정비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달 안에 총 11개의 빈집 소유주와 임대주택, 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 주민 편의 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5년 이상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비로 주변시세의 반값에 빌려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8개 중 11개의 빈집을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2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억9000만원을 들여 빈집 141개를 정비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해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 실현할 수



전북 전주시가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빈집철거 모습.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